

한가운데 있는 장미꽃 봉오리 같아. 네가 우리 어머니들  
집으로 걸어가기만 하면, 자기 새끼를 찾아 달음질하는 자  
고새의 앞기슴은 그 아름다움이 시들해지고, 가볍던 걸음  
걸이도 전만 못하지. 나무에 가려 너를 시야에서 놓치더라  
도, 널 다시 찾으려고 애써 살피보지 않아도 돼. 네가 지나  
간 공기 속에, 네가 앉아 있던 풀 위에, 도무지 말로 다 할  
수 없는 너의 무언가가 내게 남아 있어. 내가 너에게 다가  
가면, 너는 내 모든 감각을 황홀케 해. 하늘의 쪽빛도 너의  
파란 눈만큼 아름답지 못하고, 십자매의 노래도 네 목소리  
의 음색만큼은 감미롭지 못해. 겨우 손가락 끝으로 널 스  
치기만 해도 온몸이 기쁨으로 떨려. 자갈을 헤뜨려 가며  
삼유방산 강을 건넌던 날 기억나? 강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 
이미 너무 피곤했지만, 널 등에 업었을 땐 한 마리 새처럼  
날개를 단 것 같았어. 어떤 묘책으로 나한테 이런 마법을  
부릴 수 있었는지 말해줘. 너의 지혜 때문일까? 하지만 우리  
둘보단 어머니들이 더 뛰어나신걸. 너의 애정표현 때문일  
까? 하지만 입맞춤이라면 너보다 어머니들이 더 자주 해주  
시는걸. 나는 네가 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. 도망쳐 나온  
불쌍한 노예의 용서를 구해주겠다고 흑강 지구까지 맨발로  
걸어가던 모습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거야. 자 여기, 가져  
가 사랑하는 동생아, 내가 숲에서 꺾어온 꽃 핀 레몬나무  
가지야. 밤에 침대 가까이 두면 좋아. 이 벌집도 먹어봐. 너  
주려고 바위 꼭대기에서 따 왔어.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내